

# 담론의 형성 작용과 재현의 정치성 전경화

## -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론 -

차진명 (충남대학교)

### 1. 들어가며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에서의 ‘배꼽’ 담론<sup>1)</sup>은 단순히 “희화화를 위한 무의미한 기표의 연쇄”<sup>2)</sup>만을 나타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소설은 “그동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온 서사적 재현의 숨은 의미들을 전경화”<sup>3)</sup>하며 ‘탈자연화’한다. 담론이면서 재현인 이 소설이 ‘담론의 형성 작용 그리고 재현의 정치성’을 전경화한다는 점은 자기반영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본 소설은 “문화적 기호가 그 자체로 새로운 실체들을 창조하고 환기하는 능동적인 요인이 됨을, 곧 새로운 사회적 형식, 새로운 행동과 사고방식, 태도를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sup>4)</sup>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독자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을 구성하는 세계의 재현이 ‘만들어지고 구성된’ 질서임을 의식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진리, 주체, 대상 등이 고정되거나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며 사회문화의 맥락에 따라 ‘구성’되는, ‘미결정성’의 정치적 가치를 지님을 지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러한 구성주의<sup>5)</sup>적이며 신역사주의<sup>6)</sup>적인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미셸 푸코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내러티브<sup>7)</sup>를 꼼꼼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소설의 내러티브 구조를 ‘처음-중간-끝-’으로 도식화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살피도록 한다.

내러티브	해당 장	주요 내용
처음(시작점)	1장	허원의 ‘배꼽 잃어버림’ 사건 발생
중간	2, 3, 4, 5장	· 2, 3장 : 배꼽 담론의 형성 과정, ‘현재’의 배꼽 논의를 위해 점검하는 배꼽의 역사와 진실(참) · 4, 5장 : 배꼽 재현의 과정, 재현의 정치성, 허원의 진실을 말할 용기
끝(종착점)	6장	허원의 ‘배꼽 되찾음’의 사건 발생

- 1) “담론이란 모든 종류의 언술을 지칭하는 일반적 용어로서, 그 언술들이 형성되는 규칙과 함께 특정한 언술이 유통되거나 배제되는 과정을 모두 포괄한다.” (사라 밀스, 『현재의 역사가 미셸 푸코』, 임경규 옮김, 엘피, 2008, 124쪽.)
- 2) 김우영, 「‘언어’와 분석 사이, ‘행위’하는 몸-이청준의 신체 모티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제54집,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4, 558쪽.
- 3) 린다 허천,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과 전략』, 장성희 옮김, 현대미학사, 1998, 62쪽.
- 4) 마이클 라이언,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정치화 문화』, 나병철·이경훈 역, 갈무리, 1996.
- 5) 사회구성주의는 모든 진리, 인식 주체, 인식 대상이 특정한 시공간 내에서 구성된 것이라 주장한다. 즉, 인간의 경험은 자연적 과정이 아닌 사회적 과정에서 구성되고, 생성된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는 사고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구성주의자들은 담론이 영원불변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일시적이며 가변적이라는 신념을 고수한다.
- 6) 신역사주의자들에게 ‘역사’란 사건들의 선형적 진행도 진보적이지도 않다. 그들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사실의 문제라기보다는 ‘해석의 문제’라는 입장을 내세운다. 구성주의와 마찬가지로 신역사주의자들도 모든 사건은 사건을 낳은 문화에 의해 형성되는 동시에 그 문화를 형성하고, 우리의 주체성 또한 문화에 의해 형성되는 동시에 그 문화를 형성하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임을 주장한다. (로이스 타이슨 지음, 「신역사주의」, 『비평 이론의 모든 것』, 엘피, 2012, 590-591쪽.)
- 7) 내러티브는 ‘시작점에서 종착점으로 움직인다는 면에서 하나의 서사 공간을 가지며, 그 시작과 종결 사이에는 우회, 지연이라 부를 중간이 포함된다. (폴 코블리, 『내러티브』, 윤혜준 역, 서울대출판문화원, 2016, 12-27쪽.)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하나의 줄거리가 ‘처음-중간-끝’의 구성요소를 가진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뒤풍록과 탈로, 김한식 역, 펍클래식코리아, 2010, 176, 180쪽.) 이에 본고는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의 내러티브를 처음(시작점)-중간-끝(종착점)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표로 도식화하였다.

## 2. 처음 : ‘배꼽 잃어버림’의 사건과 ‘변주’의 의미

소설은 아래의 문장으로 시작한다. 허원의 ‘배꼽 잃어버림’의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너무도 무심결에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이번”에 의해 일어난 “이상한 일”(297)이다.

어느 날 아침 허원(許元)은 문득 그의 배꼽을 잃어버렸다.<sup>8)</sup>

이 우연하고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배꼽의 상실은 내러티브 시작점인 지금-여기 단 한 번 일회적으로만 발생·출현한 사건이자, 원인을 전혀 설명할 수도 법칙화할 수도 없는 유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배꼽의 잃어버림’ 사건은 허원에게 “자신의 고유성과 특이성의 실존을 가지는 사건”<sup>9)</sup>으로써 자리하기 시작한다. 환원불가능한 ‘배꼽 잃어버림’의 사건은 허원의 배에 배꼽이 존재했을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인식의 단절·불연속을 불러일으킨다. ‘있음’(有)에서 ‘없음’(無)으로 배꼽 사물의 질서가 변화했다는 것은, 배꼽에 대한 인식과 지식의 새로운 구성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배꼽 잃어버림’의 사건은 “원초적 경험의 테마로써, 진실의 형식 아래 세계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립”<sup>10)</sup>한다. 배꼽의 상실은 이제 “새로운 것이 난입하는 ‘사건’으로 새로운 진실의 현실태를 특징 짓는”<sup>11)</sup> 특이성의 기제가 된다. 예컨대, 이 사건 이후에 도래한 진실(참)이란 말 그대로 ‘배꼽을 잃어버림’이 된다. 이 작품은 사물 배꼽의 질서가 변화함에 따라 진실의 문제도 새롭게 ‘변주’하여 구성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제목이 표상하는 ‘변주’의 첫 번째 의미이다. 또한 ‘배꼽’이라는 사물을 ‘잃어버림’은 다음의 ‘변주’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바로 ‘배꼽’ 표면의 물체성이 분산되어 비물체화된 무형의 기호가 된다는 점이다. 이 작품에서 배꼽은, 자신의 물질성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표면으로부터 의미 작용의 ‘효과’를 방출하기 시작한다. 즉 사물 배꼽이 자신의 물체적 기원으로부터 해방하여 ‘사유’의 초월론적인 표면을 생산하는 ‘변주’<sup>12)</sup>를 하고야 만 것이다. 이러한 ‘변주’는 ‘배꼽’ 기호가 작품 내 진실이 발생하는 표면이자 핵심 공간소가 됨을 은유하고 있다. 배꼽의 ‘있음에서 없음으로의 사물성의 변주’는 배꼽이라는 공간소가 의미 작용의 내재적 공간으로 탈바꿈함을 이른다. 허원은 배꼽을 잃고 나서야 배꼽에 대한 허전함과 배꼽을 “의식”하는 “끝없는 상념”(299)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초적 주체인 허원은 배꼽을 잃어버리고 난 후 배꼽 기호 곧 “텅 빈 사물의 무능력 또는 두께를 가로질러 거기에 놓여있는 의미를 직관 속에서 재포착”<sup>13)</sup>하기 시작한다. ‘배꼽의 잃어버림’으로 인해, 비로소 배꼽에 대한 ‘사유’를 하게 된 허원은 배꼽에 대한 “지식과 사념”에 기대 자신만의 “독특한 배꼽론”(300)을 발전시켜 나간다.

## 3. 중간 : 배꼽 담론의 형성 작용과 재현의 정치성

‘중간’ 부분은 배꼽 담론 작용에 의한 ‘효과’를 그려낸다. 배꼽 담론 형성 작용의 ‘효과’란 권력/지식, 진실, 주체성, 대상성 등의 실체가 담론 안에서 구성됨을 이른다. 2장에서 “세상 사람들 역시” 배꼽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배꼽 이야기”(301) 또한 “일반화의

8) 이청준, 『가면의 꿈』, 열림원, 2009, 295쪽.

이후부터의 텍스트 인용은 쪽수만 본문에 명기할 것을 밝혀둔다.

9) 허경, 『미셸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 읽기』, 세창미디어, 2016, 84-87쪽.

10) 미셸 푸코, 『담론의 질서』, 허경 옮김, 세창출판사, 2020, 65쪽.

11) 프레데리크 그로 외 지음, 『미셸 푸코 진실의 용기』, 심세광·박은영·김영·박규현 옮김, 도서출판 길, 2006, 29쪽.

12) 송기섭은 이 소설의 ‘변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변주’는 배꼽의 ‘물질성을 뒤로하고 비물체적이 되는 것, 즉 발생과 동일한 생산의 효과를 지칭한다.” (송기섭, 「재현의 발생과 포화된 형식 : 조 휴즈, 『들뢰즈와 재현의 발생』, 박인성 역, 도서출판b, 2021」, 『이화어문논집』 제55집, 이화어문학회, 2021, 175쪽.) 본고 또한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고자 한다.

13) 미셸 푸코(2020), 앞의 책, 2020, 64쪽.

기미를 엿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공개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배꼽 이야기”의 형성은 담론 형성을 뜻한다. 잡지, 신문, 방송국 더 나아가 배꼽 지식의 전문적인 체계화를 요구하는 학술 저널 《주간 배꼽》을 통해 점점 더 “광범위하게” 유포된다. 잡지, 신문, 방송국, 학술 저널 등은 일관성 있는 지식 체계를 만들고 그것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수단이다.

사람들이 아담·이브 논쟁을 통해 배꼽의 역사를 검토하고자 함은 바로 진실을 문제화하기 위함이다. 담론 형성의 작용 효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의 문제이고, 배꼽 담론 또한 “자신의 눈앞에서 태어나고 있는 특정한 진실의 반짝거림”<sup>14)</sup>과 관련된다. 어떤 이들은 중세 시대 권력/지식의 주체인 교황이 주장하는 진리를 화가들도 의심 없이 신봉하여 배꼽 없는 아담과 이브를 그려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 시기 ‘배꼽을 그리는 일’은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금기’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반대 입장을 가진 자들은 “진정한 시대정신이란 ‘보여주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여 발견된’ 것이어야”(306) 한다고 주장한다. 중세시대의 사물을 독해하는 인식론적 틀은 존재자가 신에 의해 창조되어 있음이었다. 즉 그때의 화가들에게 ‘보여주어서 보이는’ 진리는 다름 아닌, 신론에 의해 배제된 진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예술가들이 시대의 주어진 자장에서의 인식의 문제를 뛰어넘어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발견’의 진리이자, 시대정신임을 강조한다. 그들은 “아담과 이브에게는 배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덧 확고부동한 “배꼽계의 권위자가”(310)된 허원이 배꼽 담론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면서 아담·이브에 관한 논쟁은 결론을 맞이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세시대의 화가들은 배꼽이 있는 인간을 그리고 싶었을 테지만 파문이 두렵고 용기가 없어 “마음속에 간직한 자신의 진실을” “맘껏 구가할 수 있는 때를, 그 금기의 배꼽을 마음대로 그리게 되는 때”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을 것”(312)이라는 결론이다. “오늘”날에는 아담과 이브의 배꼽을 그린 그림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이것은 화가들의 “용기”(313)에 의해 “실현”된 결과라는 것이다. ‘진실을 말할 용기’ 즉 파레시아<sup>15)</sup>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의한 허원은 ‘용기론자’를 자처한다.

이후 《주간 배꼽》의 ‘보고 싶은 배꼽 베스트 3’에 허원과 H, L이 뽑힌다. “세 사람은 모두 배꼽 논쟁에서 역할이 두드러졌던 사람들이다.”(318) 《주간 배꼽》은 그들에게 “사진이나 데생 가운데서 하나를 택”(320)하여 소개할 것을 권한다. 먼저 H는 자신의 배꼽을 재현해내는 수단으로 데생과 글을 선택하였다. 허원은 H의 “배꼽의 그림이 어쩌나 신선한 실감을 자아내게 했는지”(322) 감탄을 한다. L은 “사진으로” 자신의 배꼽을 “직접 보여주”(324)었는데, 그의 배꼽 사진 또한 “단순한 대로 당당했고 깊고 어두운 대로 실감이 있었다”(325). 배꼽 권위자들의 실감 나는 배꼽을 보고 나니 허원은 자신을 제외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진짜 배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리라는 실의에 빠진다. 허나 허원은 이내 L의 사진이 실은 “배꼽의 그림을 그려 붙이고 찍은 사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H와 L은 재현에 있어서 그 방법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 배꼽을 어떻게 표현해낼지와, 어떤 부분을 감출 것인지를 선택·배제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배꼽을 ‘보여주어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었다. 이는 그들의 데생과 글이 형성한 문맥, 혹은 사진과 글이 형성한 문맥에 의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도대로 ‘믿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담론을 주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편, 배꼽 권위자인 허원이 배꼽을 잃어버린 자라는 “비밀”을 공유하고, 그것을 받

14) 미셸 푸코(2020), 앞의 책, 2020, 66쪽.

15) 파레시아라는 말은 ‘솔직히 말하기’, ‘진실 말하기’, ‘진실의 용기’, ‘발언의 자유’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파레시아스트는 자신이 말하는 바가 진실되다. 믿기 때문에 진실된 바를 말하며, 그것이 진짜로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는다. 파레시아스트가 솔직해서가 아니라 그는 자신의 의견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임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파레시아에서는 신념과 진실이 정확히 일치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파레시아스트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이다. 물론 이 위험이 늘 생명의 위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파레시아에서 위험은 언제나 파레시아스트가 언명한 진실이 대화 상대자에게 상처를 주거나 분노를 촉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미셸 푸코, 『담론과 진실』, 오트르망 심세광·전혜리 옮김, 동녘, 2017, 12, 92-93, 96쪽.)

설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사회적으로도 이미 그것은 “금기”(331)시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배꼽을 잃어버렸다는 상황의 비밀을 발설하는 순간, 그것이 배꼽계와 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므로 이러한 특정 언술은 배제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배꼽을 잃어버린 것이 ‘참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담론을 통해 진실 조작이 가능함을 이 소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L의 배꼽이 진짜든 가짜든 허원 “자신의 배꼽을 잃어버린 것은 변함없는 사실”의 문제였다. 그리하여 허원은 “제 자신의 배꼽 이야기나 그걸 보여주는 일은” “사실이어야”(327) 한다면, 자기를 배려하는 용기를 실천하고자 다시금 결심한다. 그리하여 허원은 자신의 배꼽 소개를 앞두고 진실과 거짓 사이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 4. 끝 : 진실의 용기와 ‘배꼽 되찾음’ 사건의 의미

결국 허원은 《주간 배꼽》지로 원고를 보내지 않고 기차에 몸을 싣는다. 그가 자신만의 ‘용기’로서 선택한 방식은 배꼽 소개를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다. “소통”(332)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허원은 “거짓”을 진짜처럼 만드는 것에 거부하고 저항하기 위해 ‘침묵’을 택한다. 이때의 침묵은 어떤 진실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침묵이며, 파레시아적 행위이자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주간 배꼽》에 자신의 배꼽 소개를 하지 않고 도망간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거나 분노를 일으키는 방식이 될 수 있고, 배꼽 없음을 의심받고 들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배꼽 소개를 포기함은 “표상의 통제를 통한 자기 수련<sup>16)</sup>” 형태의 파레시아를 실천한 셈이다. 한편, 기차에서 허원은 갑자기 “느닷없는 이변”을 “발견”(333)한다.

그것을 찾으려고 그리 애를 쓸 때는 기미도 보이지 않던 배꼽이 마치도 거짓말처럼 또는 우연처럼 그렇게 문득 되돌아와 있었다. (334)

“우연”하게 발생한 배꼽의 물체성 획득 또한 내러티브 종착점인 지금-여기 단 한 번 일회적으로 순간 발생·출현한 사건이다. 배꼽은 결코 허원의 노력과 의지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측불가능한 ‘배꼽의 되찾음’의 사건은, 그것의 재출현 가능성을 알 수 없으므로 ‘바깥’에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허원에게 배꼽이 없었을 때와는 또다시 분리될 완전히 다른 인식의 단절·불연속이 일어난 것이다. 본 소설은 처음과 끝에 이러한 ‘새로움의 사건’을 각각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영원불변하게 고정되는 것이 아닌 우연한 계기로 변주해나갈 배꼽 담론과 진리 사건에 대해 지적한다. 곧 배꼽의 ‘실종’과 ‘복구’란 역사적 상황의 우연한 반복과 그에 대한 진리(진실) 놀이는 차이를 낳으며 새로이 실체들을 생성한다. 고로 제목에서의 ‘변주곡’은 이처럼 ‘단절의 선형성’이란 역설을 끝없이 이루어나갈 배꼽의 역사와 진리 놀이를 상징한다. 즉, 사물 ‘배꼽’에 대한 인식이 단절로써 변주하는 곡선(‘변주곡’)인 배꼽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갈 것을 사유케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러티브 종착점에서, ‘없음’(無)으로부터 ‘있음’(有)으로 배꼽 사물의 질서가 또 변주했다는 것은 변형된 진실의 의지와 관련되는 새로운 형식, 새로운 담론이 출현할 여지를 비결정적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독해는 결말을 ‘열린 결말’로 보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배꼽이 다시 돌아온 이래로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할 허원은 이전에 배꼽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자신만의 배꼽론을 달리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불시에 되돌아온 자신의 배꼽을 슬금슬금 어루만져 보”는 허원의 마지막 행위는 내러티브 ‘처음’에 그러하였듯 그가 되찾은 배꼽에 대한 끝없는 상념에 젖어 들어 새로운 배꼽론 형성에 집중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내러티브는 여기서 그만 종결되는데, 본고는 이를 이 작품이 열린 결말로써 열린 가능성의 여백을 남긴 채 막을 내리는 것으로 보았다.

16) 미셸 푸코(2017), 앞의 책, 12, 383쪽.